

■ 서울시, '재난위험' 저소득층 밀집지역 16곳 환경 개선

서울시는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 밀집지역의 경우 한 번 사고가 발생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7개구의 16개 지역을 선정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 7개구는 구로구, 동작구, 중랑구, 금천구, 종로구, 마포구, 양천구이며, 주요 내용은 ▲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 생활기반시설 정비 ▲ 재난위험시설 D·E등급 10개소 정비 ▲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 보행안전시설 조성 등이다.

■ 경기도,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 성대히 열려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이 지난 4.11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대형화와 다양화로 시·군단위로 조직된 자율방재단 상호간의 지원과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대비, 교류협력, 복리증진 및 공동문제해결을 위한 광역단위의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12.2.22 자연재해대책법에 전국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했고, 경기도는 '12.12.28 관련조례를 제정공포해 전국 최초로 연합회 구성과 함께 오늘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

■ 인천시, 지하수시설 양성화 추진

인천시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설치한 지하수시설 (동력장치 없는 경우 인·허가대상 아님)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해 양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에 따르면 201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면제해주고 양성화하기로 하였다.

■ 강원도, 전 도민이 함께하는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범국가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2013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제9회 째를 맞이하여 전국 407개 기관·단체와 국민이 참여하고 강원도는 도및18개시군, 14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훈련 첫날 5.6일은 비상대응체계 자체 대응점검 시작으로 5.7~8, 2일간 본격적으로 산불, 지진, 지진해일 등 발생가능한 모든 재난유형을 가상, 도상 및 현장훈련을 단체장 주관하에 실시하였다.

■ 충청북도, 지진 대비 제391차 민방위 훈련 실시

충청북도는 지난 5.7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 지진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오후 2시부터 20분간 도내 읍 단위 이상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지진발생 시 안전한 주민대피 및 비상차로 확보, 초·중고 학생 실제체험 교육으로 행동요령 습득과 참여, 체험을 통한 국민 공감형 훈련 체계 정착을 위해 실시하였다.

■ 충남도, 어항 안전시설 등 일제점검

충남도는 오는 5.13일부터 3일간 도내 어항시설 중 이용객의 왕래가 많은 방파제, 선착장 등 어항 안전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도는 해양수산부 및 각 시·군과 합동으로 국가어항 8곳, 지방어항 29곳, 어촌정주어항 20곳, 소규모항 43곳 등 도내 100개 어항의 안전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 대전시, 하수관로 확충·정비사업 '순항'

대전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2016년까지 4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기 철이면 상승적으로 침수돼왔던 '서구 탄방동 주공아파트 일원'의 반복적 침수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 20억 원을 긴급 투입, 올 우기 전 완료할 계획이다.

■ 전북도, 2013년 저수지·배수장 비상대처훈련

전라북도에서는 5.16까지 집중호우 또는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저수지 붕괴, 배수장 가동 중단 등 수리시설의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상 현장훈련을 도내 저수지, 배수장 등 49개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남도, 추진 사방시설 재해 예방·농업용수 톡톡

전라남도는 역점 추진하는 사방시설 사업이 사방댐 및 계류 보전사업을 통해 재해 예방은 물론 농업용수의 주요 공급원으로 활용돼 농가들의 추가사업 요청이 날로 늘어 올해 39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산사태를 예방하고 토사 유출을 방지하며 가뭄 대비 농업용수 및 산불 진화용수 확보를 위한 산간 저류시설(사방댐·계류보전) 150개소, 산사태 예방사업 20ha, 해안 방재림 16ha 등이다.

■ 광주시, 여름철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키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4.24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광주지방경찰청, 한국전력, 대한건설기계협회, 옥외광고협회 등 22개 기관·단체와 여름철 자연재난 시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열었다.

■ 경북도, 하천제방 안전관리 점검

경상북도는 5.16일까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국가하천 비롯한 지방하천의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수문)의 점검·정비철저로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 구역 내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사목 및 잡목 등 지장물 제거를 통한 원활한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다.

■ 대구시, 소방산업 최첨단 신제품·신기술 한눈에!

국내 유일의 소방안전산업 전문 B2B 전시회 『제10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올해 10주년을 맞아 대구시와 소방방재청 공동 주최로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EXCO에서 개최하였다.

■ 울산시, 5월부터 오존 대응체제 가동

울산시는 대기 중 오존(O3)의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이를 신속히 시민에게 알리고 오존 농도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남도, 소하천정비사업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경남도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시행한 2012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종합평가 에서 광역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기초지자체는 의령군, 거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다가오는 5월 28일 제20회 방재의 날 행사시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받는다.

■ 부산시, 외국자본 유치에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부산시는 2013.5.20.부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애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시행한다.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으로 외국인투자유치가 활성화되어 부족한 관광인프라시설 확충,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주도, 안전한국 실현을 위한『제1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김홍필)는 5. 13(월)부터 6. 26(수)까지 45일간 안전분야의 가치를 높인 기업,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제1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세종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절감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 이하 세종시)는 오는 7월 말까지 국가적 에너지 절약 정책에 동참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에스코(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을 추진한다.